

'93학년도 입학정원 90명 증원

교육부 확정허가 이공계열만 조정, 대학원도 1백5명

93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이 기계공학과 30명, 전자계산학과 20명 등 총90명이 증원 되었으며 대학원 역시 1백5명의 입학정원이 증원 조정되었다.

이번 정원조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입생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이공계열 학과에 한해서만 증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30명, 전자계산학과 20명, 산업공학 과 20명, 섬유공학과 10명, 화학공학과 10명으로 92년 총입학정원 4천2백40명에서 4천2백50명으로 90명이 증원되었다.

대학원은 철학과 박사과정, 사회학과 석사과정, 산업정보대학원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하였다. 신로방송대학원의 출판잡지학과는 출판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학원 정원조정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이공계분야 지명을 포함해 30명 증원했고 석사과정이 이공분야 28명 포함 40명, 산업정보대학원 석사과정 35명 포함 1백5명이 증원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정원조정에서 교육역량 개선노력을 유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분야 교수확보율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93학년 대입 정원조정을 차등 배정했다고 밝혔다.

공대 연구·실험 지원센터 설립 중요장비 공동이용 가능

수원캠퍼스 공대는 지난 6월17일 이공계열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실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실험 지원센터'를 설립 개소했다.

초대소장은 우재현(섬유공)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앞으로 이 센터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중요장비와 운송·유지·보수와 교수간

공동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와 실험을 기계기구의 고내 실험 장치 및 개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초대소장이 우교수는 "연구·실험 지원센터와 연구자간의 연계로서 학제적 연구와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며 계속적인 지원과 인력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무자 협상테이블에 참여해야

▼지치지 못할 약속은 한지도 말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상대방의 불만을 무시시키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는 식의 약속은 일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동안에 가졌던 다소간의 신뢰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또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의미를 담고있기도 하다.

▼92학년도 1학기 살아있는 약속으로의 합의서 등록금협상에서 합의서가 채택된 지 4개월이 지나니, 합의서의 내용중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뤄졌던 복지회관과 가정대전을 신축 문제의 경우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복지회관의 경우, 지난 5월16일 불발소통이던 의뢰원 소통조합 사무실이 철거됨에 따라 본교 건설부가 "도시계획 변경하기"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건축허가승인이 오래도록 지연되었고 두 건물의 건축허가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대전을 신축 승인도 당연히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교수채용문제는 어찌한가. 학생, 교수, 학교 3자협의를 통한 합의적인 교수채용은, 학교측이 시일이 촉박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교수채용 공고를 함으로써 그 문제가 도출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합의서 채택 이전에 실무적인 면들까지 충분한 논의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었다. 작금·완공시기를 단지 분석화한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3자협의를 거쳐 교수채용이되고 복지를 보시고 이후 이 항에 있어서는 다른모습을 보임은 서로의 약속을 전제로 한 합의서가 한 달 동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상충부에서 이행하지도 못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건설부 담당자만 보더라도 이제 상충부끼리의 논의가 아닌, 협상테이블을 실제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까지도 포함하는 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수, 학생간의 3자협의를 위한 공과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결문제였던 것이다. 등록금협상에서 합의서는 충분한 논의와 대화로써 이루어진 서면의 합의 약속이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이 학생과 교를 이뤄야 할 합의서가 진정한 것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서이다.

있으며 다들하기 역시 대학원생 포함 총1백74명이 증원되었다.

조충장 물고서 명예박사발아

조영식총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3일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어나는 순수로 어두운 시대를 헤쳐 가는 정의와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물고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한편 조총장은 지난 8월6일 중학교교육을 사임하고 미국에서 북서대학교(총장:박우진), 중앙대학교(총장:최우택)과 양교간의 학술적 인적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등문2명 해외공관장에 선임

등문 최호근 해외공관장으로 선임된 배태수(법·10회) 등문과 장재현(경·11회) 등문이 지난 27일 모교를 방문하였다.

배태수는 주말만 나가다 총영사관, 장재현은 주 스웨덴 라스칼미스 총영사관 총영사로 임명, 오는 9월20일과 5일차로 부임한다.



총학, 2학기 사업기조 발표 서울 29일 자주경제제 수월 3일 진군식

이 사업기조에 따른 2학기 핵심사업으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자주경제제를 통한 교수, 등문, 교직원, 학생과의 민주대언의 추진과 연방 대선에서 민주적 승리투쟁이다.

또한 정치토론회, 시국대토론회 등으로 일반 학생들의 구조적 인식을 심화시켜 민주정부 수립의 주인, 주체로 나서게 할 것. 내란을 책임진 간부를 반국, 간부 스스로의 반국가 사업 결의를 내줄 것 등 2학기 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학기 총학 진군식은 자체 사업 일정상 치루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3일 오후3시 광대 통일광장에서 2학기 진군식을 실시한다.

교직원 임금교섭 진전 불투명 사무보조·임시직 임금인상폭 의견대립

본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하계방학으로 중단되었던 학교교직원 임금교섭을 지난 27일 오후2시30분 본교 대회의실에서 재개했다.

노조는 방학중에도 진행되었던 학교교직원 8차례 임금교섭을 통해 사무보조직, 임시직의 임금인상 불발률 적용, 학교측의 일반 직원 5%인상된 7월 급여 지급에 동의하며 임금교섭을 중단했다.

지난 27일 재개된 임금교섭에서 학교측과 노조는 교수(본교, 연구단, 학생지도비) 합의의 5%이상된 금액과 정액 3만원), 교직원(본교의 5% 인상된 금액과 정액 3만원)의 임금인상에는 일정 부분은 합의를 보았으나 임시직과 사무보조직의 임금인상에 의견이 엇갈렸다.

학교측은 임시직과 사무보조직의 임금인상에 대해 연봉20% 인상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사무보조 1호봉의 75%인 최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무보조직은 '학교 측이 사무보조직, 임시직을 실질적인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자체도 갖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계비마저 보장하지 않아 올해 임금교섭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교섭의 진전을 기대했다.

한편 한동훈 사무처장은 "경비직원을 위해 고용한 임시직, 사무보조직을 정착원과 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고 역설해 오는 1월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 고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

- 기간: '92. 9. 2(화)~9. 4(목), 3일간
- 장 소: 학과사무실
- 방 법:
 - 가. 확인: 최초 수강신청(OMR CARD사용)한 교과목의 이수구분등 수강신청 확인 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나. 정정: 정정사항(수강신청확인 전 항목중 1개 항목의 정정 사유가 있어도 정정해야함) 발생시 해당 교과목의 처리구분란에 "D"를 표기하고, 추가할 교과목은 "I"를 표기한 후 이수구분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재학생 중 최초수강신청 누락자는 학번 및 성명이 기록된 개인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원인의 처리구분란에 "I"를 표기하고 신청교과목의 필요한 모든사항을 기재하며 '복합생'은 Blank된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원인의 처리구분란에 "I"를 표기하고 신청교과목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 상기 3-나 및 4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관용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원은 개인별로 보관하고, 교무과 보관용은 학과별로 일괄하여 교무과에 제출한다.
-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추후 별도의 정정기간이 없으므로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원의 <작성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한 후 작성하기를 요망함.

교무처장

'92년도 하반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1. '92년도 하반기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과 복학생중 예비군 대원의 편성신고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전원 기일 엄수 신고하기 바라며 지연신고자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가. 신고기간: '92. 8. 17부터 등록기간내

나. 신고장소: 예비군연대본부(본관 1층)

다. 지참물: 캠퍼스명지정 1대 도장

2. 이미 편성된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주소이전자는 연대본부에 즉시 신고하여야함(특히 후반기 졸업자)

3. 대학원 진학자중 연대본부에 미신고자는 전원 지역으로 예비군카드를 송부했으나 연대본부에 재신고할것

문의전화: 961-0148~9

경희대학교지정예비군연대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편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써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상환방법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내에	0개월소정 납입기간에 대출원금과 공동분할금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장기학자금	85. 8. 1 이전대출자	원금: 거지기간(대학기간) 종료후 3년내 기일 공동분할상환 이자: 거지기간에는 대출후 3개월, 공동분할기간에는 매월납입
	85. 8. 1~ 89. 12. 21대출자	원금: 거지기간(대학기간) 종료후 5년내 기일 공동분할상환 이자: 거지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납입
	89. 12. 22 이후대출자	원금: 거지기간(대학기간) 종료후 5년내 기일 공동분할상환 이자: 거지기간에는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납입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원금으로 납입

주) 장기장학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무 기간만큼 거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셔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지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지게 되면 은행으로부터는 제도에 취할 수 없는 불이익으로 자금회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지원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국민대중이 활용되는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함을 심심 할망 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경에 상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 민 은 행